

# 시내버스 정기권 요금 인상된다

### 전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30일권 4만원→4만6000원 등 현재보다 약 15% 인상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내버스 정기권 요금이 현행 버스요금에 맞춰 인상된다

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 요금을 현재보다 약 15%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7월 성인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데 따라 시내버스 정기권 요금도 상당부분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1인 1달 기준 4만6000원인 30일권은 4만8000원으로, 2인 1달 기준 9000원에서는 1만 원으로 오른다. 또 하루 종일 자유롭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1일권의 경우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은 정해진 기간 무제한으로 전주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전용 교통카드인 전·주·원주지역 GS25 편의점에서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시 카드값이 별도로 3000원이 소요되며, 구급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주시 정기권'을 검색하면 모바일 정기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정기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변경 내역을 버스 승강장 BIS,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GS25 편의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정기권 인상 시기를 6개월 늦추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권 요금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은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정책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5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0명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소통 나서

### 지역 5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0명 초청 소통 간담회 갖고 올 한해 활동 공유·노고 격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5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0명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ESG 공동실천 협약과 대학생 릴레이 현열운동 등 올해 시와 대학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전직 총학생회장들의 2021년을 보낸 소감과 차기 총학생회장들의 2022년 임년권을 맞이하는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길환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이

ESG 공동실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생 릴레이 현열운동은 준비 과정부터 홍보까지 총학생회가 주축으로 활동했는데,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속에 추진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수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전주 지역 대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신 전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전주시와 대학 연합이 더 다양한 행사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의 미래를 양성

하는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미래전략혁신과 내에 대학주도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학총학생회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6개 대학과 ESG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 시는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해 대학생 릴레이 현열운동을 펼쳐 현열수급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대학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동물원, 동물복지 '통합 1위' 최우수기관 선정

### KAZA 주관 '제1회 국내 동물원평가'서 환경부장관상 수상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이 국내 13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로부터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제36회 카자 정기총회(대의원회의)에서 진행된 '제1회 2021 국내 동물원평가'의 동물복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동물복지, 교육, 연구, 진료정보전, 전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주동물원은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개선하고 동물행동풍부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교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통합 1위를 차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주동물원은 이번 평가에서 노후화된 동물원을 동물들의 안정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물 치유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공간이자 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전주시는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제36회 카자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제1회 2021 국내 동물원평가'의 동물복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받았다.

실제로 시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으로 △사자·호랑이사 △원숭이사 △큰물새장 △늑대사 △곰사 등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코끼리사인 '초원의 숲'과 토종동물사(샐)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늑대사의 경우 나무, 바위, 늑대굴 등 야생사육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갖춘 늑대의 숲으로 변신한 결과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해 늑대 5남매가 태어나

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공공·지자체 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에 대한 관리, 보호, 정보교류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서 '종합대상'

폭우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거처를 잃은 시민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해온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집 없는 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2021년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에서 단체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시

민의 사례를 발굴하고,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년간 '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대선사 맞춤형 주거 상담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5호 운영 △주거복지 인식 확산 및 정책 이해도 증진 위한 교육·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각장애인 해소 △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은주 센터장은 "센터가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